



해양수산부

#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일시	2022. 12. 21.(수) 13:00
담당 부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책임자	단 장 김상기 (064-720-2620)
		담당자	사무관 안현규 (064-720-2670)

## 제주해양수산관리단, 항로표지 수요조사 실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단장 김상기)은 제주해역 항포구 등에 어선의 통행에 지장이 있거나 위험한 지역에 항행안전시설인 항로표지<sup>1)</sup>를 설치하고자 2023년 2월 말까지 항로표지 수요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제주 전 해역에서 약 200기의 항로표지를 관리하고 있다. 항로표지는 제주항, 서귀포항 등 무역항을 이용하는 대형선박의 입출항에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항해장비가 적은 어선, 낚시어선, 레저선 등 소형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는 데 꼭 필요한 시설이다.

항로표지 수요조사를 통해 제주해역 항포구를 관리하고 이용하는 지자체, 수협, 어촌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항로표지를 추가 설치하거나 보완할 예정이다. 항로표지 설치가 필요한 현장이 있다면 제주해양수산관리단으로 항로표지 설치요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상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은 “적극적으로 선박 통행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안전한 제주해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1) 항로표지: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등광, 형상, 색채, 음향, 전파 등으로 항 입구, 암초 등 장애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항행보조시설(등대, 등표, 레이더비콘 등)


## 1. 광파표지(야간에 등화를 이용하여 위치 표시)

등대		항만의 소재, 항의 입구 등을 알리기 위해 연안의 육지에 설치된 등화를 갖춘 탑 모양의 구조물
등표		암초나 수심이 얇은 곳에 설치하여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에 장애물 및 항로의 소재를 알리기 위해 등화를 갖춘 구조물
등부표		선박에 암초나 수심이 얇은 곳을 알리거나, 항로의 경계를 알리기 위해 해상의 고정 위치에 띄워놓은 등화를 갖춘 구조물
조사등		암초나 방파제 끝의 돌출부분 등을 조사(照射)하여 선박에게 장애물의 소재를 알리기 위한 표지
도등		좁은 수로, 항구, 만 입구 등에서 선박에 안전한 항로를 알리기 위해 항로의 연장 선상에 고저차가 있도록 등화를 설치한 2기의 탑 모양 구조물


**2. 형상표지**(주간에 시인이 가능하도록 그 형상, 색채 등으로 위치 표시)

<b>입표</b>		암초나 수심이 얇은 곳에 설치하여 주변을 향해하는 선박에 장애물 및 항로의 소재를 알리기 위한 구조물(등화 없음)
-----------	---	---

**3. 음파표지**(안개, 눈, 비 등으로 시계가 불량할 때 소리를 내어 위치 표시)

<b>전기혼</b>		전기장치에 의한 저주파 발진으로 발음기를 울려 소리를 내는 표지
------------	---	-------------------------------------

**4. 전파표지**(전파의 여러 가지 성질을 응용하여 항해지표로 사용하는 것)

<b>레이더 비콘</b>		무지향성 전파를 24시간 발사하여 선박에서 사용중인 레이더 화면상에 모르스 휘선을 나타내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	--